

KIA 임기영, 첫 퀄리티스타트... '4~5선발 찾기' 살아남았다

윌리엄스 감독 "스타트 제대로 해주 만족"

다음달 2일 KT전 세 번째 선발 등판 예약

KIA 타이거즈 임기영(28)이 선발진에서 살아남았다.

임기영은 지난 27일 한화 이글스와 광주경기에서 6이닝 2피안타 3볼넷 1사구 3실점으로 호투했다. 승리를 따내지 못했지만 첫 퀄리티스타트에 성공했다. 팀이 4-3 역전승을 거두는 발판을 제공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조반 뎀포가 굉장히 좋았다.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임

기영도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오늘 몸 상태 좋다. 다음등판을 위한 준비 첫 날 루틴을 잘 지켰다. 일요일 등판한다. 연속 등판해도 좋을 것 같다. 스타트를 제대로 해주어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임기영은 2일 KT 위즈와의 수월경기에 선발투수로 나선다. 이로써 임기영은 4-5선발 한 자리에서 계속 선발로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두 번의 선발등판에서는 부진했고, 바로 다음날 엔트리에서 빠졌다. 퓨처스 팀에 내려가 조정했다.

이런 틈에 열흘에 한 번씩 등판했다. 세 번째 등판에서 자신의 자리를 보전했다.

KIA는 개막 이후 4~5선발투수를 확정짓지 못한 채 계속 5명을 기용해왔다. 임기영을 비롯해 이민우, 남재현, 김현수, 김유신이 4-5선발 투수로 등판했다. 그러나 모두 5회를 지키지 못해 시름을 안겼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발 두 자리는 비어있다. 잘 던져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된다"며 두려웠으나 좀처럼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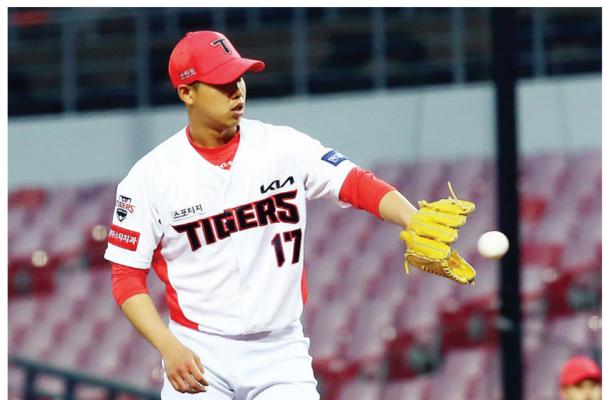
로테이션으로 2연속 등판이 없었다. 이번에 임기영이 연속으로 등판한다.

남은 한 자리의 주인공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30일 수월 KT전은 김유신이 기회를 얻었다. 김유신은 LG와의 첫 등판에서 5이닝을 소화했지만 의미있는 투구를 했다.

우안 김현수는 현재 과부하가 걸린 불펜 지원군으로 배치됐다.

이민우와 남재현은 퓨처스 팀으로 내려갔다. 작년 선발투수로 활약했던 이민우는 당분간 퓨처스에서 재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4-5선발 미로 찾기가 서서히 출구를 찾아가고 있다.

김민정기자



'초짜 프로골퍼' 박찬호 긴장한채 첫 홀서 '티샷'



28일 전북 군산CC에서 열린 KPGA 군산CC 오픈 연습라운드 1번홀에서 박찬호가 드라이버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KPGA 제공)

코리안 특급 박찬호(48)가 29일 개막한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군산CC오픈에 아마추어 추천선수 자격으로 출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회는 전북 군산의 군산컨트리클럽 리드·레이크코스(파 71·7124야드)에서 이날부터 나흘간 펼쳐 열린다. 총상금 5억원이다. 박찬호는 이날 군산CC오픈 1라운

드에서 2008년 KPGA 대상 수상자 김형성(41)과 2011년 일본투어 신인상을 차지한 박재범(39)과 한 조에 편성됐다.

오전 8시 티오프에 앞서 조금 일찍 1번홀 주변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너무 일찍 나온 것 같다. 치고 오겠다"며

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휴온스 셀러브리티 프로암 대회에 유명인사 자격으로 KPGA 코리아투어 대회에 참가했다. 또 2021년에는 스틱스투어(2부투어) 1회부터 4회 대회 예선전에 출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갤러리들의 골프장 입장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 박찬호 등 프로골퍼들의 모습

KPGA 코리아투어 군산CC오픈 아마 추천선수 출전 김형성·박재범과 같은 조 출전...첫 홀 파로 마무리

갤러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어 티잉 그라운드에서 올라 김형성·박재범 선수와 서로의 공을 확인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박찬호는 KPGA 코리아투어 도전 첫 홀을 파로 마무리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을 거둔 특급 야구 선수인 박찬호가 대한골프협회로부터 공인 핸디캡 3 이하에 대한 증명서를 수령하면서, 이 대회

를 활영하는 장소도 1·9·10·18번 홀로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군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기 특성에 맞는 방역에 나서고 있다"라며 "5월 2일 진행되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스



전남 여수시청 롤러팀.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여자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팀.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여수시청 롤러·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 전국대회 정상 올라

여수, 단체전 남녀 동반 우승 순천, 단체전·개인 단식 금

여수시청 롤러팀과 순천여자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팀이 전국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전남도체육회는 여수시청 롤러팀이 회장배 대회에서 단체전 남녀 동반 우승,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도 단체전과 개인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시청 롤러팀 박형상·김연주·이성진·이대현은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40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대학 롤러스포츠 스피드대회 남자일반부에 팀 2000m에 출전했다.

결승전에서 여수시청은 2분45초635의 기록으로 2분45초930을 기록한 대구시청을 간발의 차이로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 서소희·이해원·문지윤·심수정·조도 여자일반부 2000m에서 2분57초999의 기록으로 인천 서구청(2분58초

977)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개인전에서도 여수시청은 박형상과 이대현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고등부에서도 여고부 이유진(여수 총무고)이 2관왕을 달성했다.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은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57회 한국중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연맹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개인단식 우승, 개인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여고는 단체전 준결승에서 순

창제일고를 2대 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 대전여고 또한 2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김가현이 개인단식 결승에서 김예슬(무학여고)을 3대 2로 이기고 금메달, 개인복식에서는 김가현·김여빈조가 경북조리고의 김진아·문혜원 조에 0대 3으로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같은 대회에 출전한 순천매산고등학교도 단체전 결승에서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김정환기자

프로농구 SK 새 감독에 전희철... "문경은 감독님 성과 이어갈 것"

문경은, 기술자문으로 변경

프로농구 서울 SK가 사령탑을 교체했다. 전희철 수석코치를 새 감독으로 선임했다.

SK는 29일 "명문 구단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제8대 신임 감독에 전희철 수석코치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총 3년으로 2024년 5월까지다.

경북고~고려대를 졸업한 신임 감독은 2008년 SK에서 은퇴한 레전드다. 이후 전력분석코치, 2군감독, NBA G리그(당시 D리그) 코치 등을 역임했고, 2011년부터 수석코치를 맡았다.

전 감독은 "SK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단에 감사하며, 그동안 팀을 위해 헌신하신 문경은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경은 감독님께서 쌓아 놓은 성과를 이

어받고 더욱 발전시켜 SK를 대한민국 최고의 농구팀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임 문경은 감독은 기술자문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구단은 "문경은 감독은 지난 10년간 1번의 챔피언결정전 우승과 2번의 정규리그 1위, 플레이오프 5회 진출 등 좋은 성적은 물론 선수 육성, 팀내 소통 문화 정착 등 SK나이즈를 잘 이



문경은 감독은 "문경은 감독은 지난 10년간 1번의 챔피언결정전 우승과 2번의 정규리그 1위, 플레이오프 5회 진출 등 좋은 성적은 물론 선수 육성, 팀내 소통 문화 정착 등 SK나이즈를 잘 이

프로배구 OK금융그룹, FA 이민규와 연봉 7억원 3년 계약...구단 최고대우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이 자유계약선수(FA) 이민규(29)와 계약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조건은 계약기간 3년이며, 연봉은 7억원이다. 이는 OK금융그룹 배구단 창단 이후 최고 대우다.

경기대를 졸업한 이민규는 지난 2013년 1라운드 2순위로 OK금융그룹에 창단멤버로 입단해 2회의 우승을 이끄는 등 8년간 주전세터로 활약한 '원팀맨'이다.

이민규는 191cm의 장신을 활용한 높고 빠른 세트와 특유의 패스 페인트 공격이 장점인 선수다.

지난 시즌 33경기(120세트)에 출전해 세트 5위(9.5개)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를 이끈 바 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민규의 재계약으로 OK금융그룹의 세터진은 장기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민규는 "제 가치를 인정해 또 한번 기회를 주신 구단에 감사하다"며 "강하게 군복무 마치고 OK금융그룹 배구단의 우승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구단 관계자는 "창단 멤버로서 2회의 우승과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끈 이민규 선수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며 "군에 입대하는 이민규 선수가 2022~2023시즌 복귀해 구단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규는 29일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21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하며 2022~2023시즌 중 복귀할 예정이다.

영언론 "손흥민, 토트넘 잔류 전망"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할까. 재계약 여부가 이슈인 가운데 현지 언론을 통해 토트넘 잔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잭 핏 브루크 '디 에슬레틱' 기사는 29일(한국시간) 팻캐스트를 통해 "아직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에 재계약 관련 소식이 나왔다. 몇 개월 동안 진척이 없었지만 재계약은 이뤄질 것이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팔진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3년 여름까지다.

지난해 10월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이 토트넘으로부터 주급 57만 파운드(약 3억원)와 함께 옵션 포함 5년간 총액 6000만 파운드(약 928억원)를 받는 연봉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보도했다.

토트넘 구단이 코로나19로 재정적 타격을 입으면서 협상이 미뤄진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ITC는 "토트넘이 최근 카라바오컵 우승에 실패하고, 슈퍼리그 참가를 뒤집는 등 실망감을 줬다"면서도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이 올해 여름 재정보고를 위해 주축 선수들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잠재울 수 있다. 또 팬들의 기대를 높일 수 있다"며 재계약의 의미를 분석했다.

손흥민은 지난 22일 사우샘프턴과의 리그 순연 29라운드에서 경기 막판 페널티킥으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15번째 골로 2016~2017시즌 세운 개인 리그 최다 14골을 경신했다. 각종 대회를 통틀어선 20호골이다.

다음달 3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남테니스 1위 조코비치, 마드리드오픈 불참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34·세르비아)가 5월 개막하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드리드오픈에 출전하지 않는다.

조코비치는 29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올해 마드리드오픈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내년에는 팬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드리드오픈은 ATP 마스터스 1000시리즈 중 하나다. 마스터스 1000시리즈는 4대 메이저대회 바로 다음 등급으로, 1년에 9차례 열린다. 올해 마드리드오픈은 5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한다.

뉴스스